



포장과 지속가능성

Packaging and Sustainability

자원과 에너지 낭비는 물론 지구 환경 오염 등 포장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포장은 최소한 인류의 건강, 생존유지에 있어 필수 요건임도 사실이다. 포장 덕분에 인류는 생명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먹거리는 물론 대부분의 일상제품들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기는 불가능한 사회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의 일상제품들은 포장없이 대량 생산, 보관, 유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 꽤 오래전부터 인류는 생명유지와 건강은 물론 풍요로운 삶에서 포장의 절대적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곱지 못함을 느끼는 억울함이 있다.

한편 다른 산업과 달리 포장산업분야는 과연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유쾌하지는 못하다.

포장관련 산업 관련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험을 적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포장산업과 포장디자인분야 곧 하드웨어적 기술력과 감성적 기능의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차단되는 현실로 지속 가능한 포장관련 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 포장이란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련 지식, 기술은 물론 디자인이 융합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모든 산업에서도 융합이 요구되지만 특히나 포장산업에서야 말로 다양한 소재, 기술과 감성적 융합과 조화가 필요한 분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장산업 관련자들은 디자인과의 연계성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기술력과 디자인과의 대화 또는 논의와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박 규 원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지속가능 포장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는 없다. 그간 충분한 애기와 학술적 논리, 고찰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체험했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아직 선진국들 중심이다)와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지속가능 포장결과물을 위한 방식과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기획되고 창출할 있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의 포장산업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상상키 힘든 저렴한 가격경쟁력의 포장제조 능력은 물론 이제는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첨단 거대 포장제조시설을 갖추어 왔다.

생산속도 또한 더욱 빨라져 생산성향상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품질 경쟁력도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내 세우는 포장산업은 미래가 없다. 또 다른 경쟁력을 우리 포장산업에서는 발굴해야만 한다. 그리 여유가 없지만 그나마 감성적 요소인 디자인 가치를 융합한 포장산업이라면 아직 기회가 크다. 디자인분야는 아직 우리 경쟁력이 크기 때문이다.

소재와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경제적 포장. 쉽

게 버려지지 않는 포장. 또 다른 유익한 용도로 사용되는 포장 등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포장 형태의 아이디어, 기술과 문화의 융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크다.

지속가능 포장은 물리적 기술력과 감성적 디자인 욕구의 융합으로부터 출발된다.

이는 포장산업 뿐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 증명되고 있는 보편적 사실임을 잊지 않는다면 미래 포장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다. [ko]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